仁川市 江華郡 席毛島의 조개더미遺蹟 調査槪報

金碩勳(인하대학교)

1. 머리말

황해의 섬들은 선사 유적의 보고이며, 지금까지 130여 곳의 신석기 유적이 알려지고 있다[1]. 그 이유는 해안 지형상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수심이 얕으며, 갯벌의 형성 · 염분 농도 등 해산물 서식의 알맞은 해양생태계 및 육지로부터의 쉬운 접근성은 신석기인의 활동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황해 섬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왔으며, 최근 석모도에서 새롭게 유적을 발견함으로서[2] 이를 알림과 동시에 황해안 신석기 문화 파악에 일조하고자 한다.

석모도는 강화본도의 서쪽에 위치한 섬이며, 강화도 외포리 해안과 2km 정도의 수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에 속하며, 보문사 관광을 위한 명소로 잘 알려진 섬이다. 이미 석모도에서는 신석기 유적 1곳이 알려져 있으며, 이웃 섬인 강화도는 물론 주문도 등의 구해안가에서 신석기 유적을 찾아 보고한 바 있다[3].

석모도에서도 해안가의 灣이나 串 지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 많은 유적이 찾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여기서는 구리안 유적과 수습 유물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현상 파악과 설명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자 한다.

---

1) 김석훈, 2001.「黃海 中部 섬 지역의 新石器遺蹟 現況」『韓國新石器研究』, 2호, 65 89(한국신석기연구회)
2) 이 유적은 석모도 삼산초등학교 김연갑 선생님의 제보에 의해 찾았으며, 이에 감사드린다.
3) 서영대 · 김석훈, 2000.『江華地域의 先史遺蹟 · 遺物』(인하대학교 박물관)